

통시적 관점에서의 한일 대우표현 비교*

-성서언어를 자료로 한 분석-

安 增 煥**

(e-mail : ajw7340@hanmail.net)

목 차

1. 들어가기
 2. 소재경어
 - 2.1 주체존경표현
 - 2.2 객체존경표현
 3. 대자경어
 - 3.1 한국어 <성경전서>와 <표준새번역성서>
 - 3.2 일본어 <文語訳聖書>와 <新共同訳聖書>
 4. 접사에 의한 존경표현
 - 5.결론
-

1. 들어가기

본 논문은 성서언어를 자료로 통시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우표현을 비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두 언어의 대우표현을 비교함에 있어서 본고가 갖는 의의는 성서언어를 자료로 한다는 점과 통시적 관점에 선다는 점이다. 우선 두 언어의 성서는 번역하는 과정에 상호의존성이 적어 표현의 독자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자료로서의 가치가 우수하다. 그리고 통시적 관점에서 기 때문에 대우표현 전반에 대해 제한된 시기이지만 변화양상을 살필 수 있다. 본고의 통시적 범위는 두 언어로 성서가 완역된 19세기 후반기 이후가 된다.

본고에서 대조자료로 삼은 성서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의 경우 <성경전서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한남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남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1911)>와 <표준 새번역 성서(1993)>, 일본어는 <文語訳聖書(1917)>와 <新共同訳聖書(1987)>로, 이들은 각각의 언어에서 수십 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으면서 문어와 구어라는 문체상의 공통점을 갖기 때문에 본고의 의도에 부합된다. 다만 일본어 <文語訳聖書>는 신구약 성서의 번역시기에 차이가 있다. 즉 <文語訳聖書> 중 旧約聖書는 1887년에 번역된 明治訳이고, 新約聖書는 1917년에 개역된 大正訳이다. 따라서 한국어 <성경전서>와 일본어 <文語訳聖書>는 문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일본어의 구약성서로 인해 번역시기에 약간의 편차가 벌어져 있음을 분명히 해 둔다.

한편 본고는 통시적 관점에서의 비교인만큼 전개방식으로는 각 언어의 문어역 성서와 구어역 성서에 나타난 변화를 규명함으로써 두 언어의 대우표현에 나타나는 상대적 특징을 확실히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전개는 소재경어와 대자경어 그리고 접사에 의한 경어표현 방식으로 나누어 전개하기로 한다. 본고가는 논제를 경어로 잡지 않고 대우표현으로 잡은 것은 대자경어 때문이다. 즉 본고의 대자경어에서는 경어체만이 아니라 정중체와 하대체 등도 다루어지게 된다.

2. 소재경어

2.1 주체존경표현

주지하는 바대로 소재경어는 크게 주체존경과 객체존경으로 구분되는 바, 주체존경에서 두 언어는 문어와 구어를 불문하고 술어부분에서 규칙적인 표현형태를 확보하고 있어 비교가 용이하다. 다만 이들을 통시적 관점에서 개관해 보면, 한국어는 문체에 따른 변화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데 반해, 일본어는 문어와 구어 사이에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동사술어문의 경우, 한국어는 문어체에 나타나는 존경특수형태 ‘굴으샤디(갈아사대)’를 제외하고는 존칭보조어간 ‘-시-’에 의해 경어표현이 실현된다. 다만 주체존경표현 방식에서 일본어에 없는 한국어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주체명사에 존칭을 나타내는 특별한 조사가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주격조사 ‘띄셔(께서)’로, 이것이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문어역과 구어역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술어부분의 ‘-시-’와 공기한다.

한편 일본어 <文語訳聖書>에서 주체존경 표현은 「~給ふ」 하나로 실현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れる」에 의한 존경표현이 <文語訳聖書>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구어역인 <新共同訳聖書>로 들어가면 다양한 존경형태가 등장한다. 즉 「お~になる」와 「~(ら)れる(이하 ‘~れる’)」 형

만이 아니라 「~て下さる」형 그리고 동명사형에 의한 존경표현¹⁾, 나아가서는 「お~になられる」와 같은 이중경어 형태까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언어별로 문체에 따른 변화를 살피고, 이어서 한국어 성서와 일본어 성서에서의 변화를 비교하면서 위의 진술을 확인해 가기로 한다.

1) 한국어 <성경전서>와 <표준새번역 성서>

한국어의 주체존경표현은 아래 예문 (1)(2)에서 볼 수 있듯이 문어와 구어를 불문하고 조사 ‘-시-’(께서)’와 존칭보조어간 ‘-시-’의 공기에 의해 실현된다.

- (1)<성>헤롯왕 때에 예수씨서 유대 벳을네헬에서 나시니
 <표>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셨다. (마2:1)
- (2)<성>예수씨서 홀노 계실 때에
 <표>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막4:10)

이때 ‘-시-’는 주체존경표현에서 필수적이지만, ‘씨서’나 ‘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성경전서(이하 ‘성’)>와 <표준새번역 성서(이하 ‘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 (3)<성>예수씨서 사두개교인들노호여곰 디답홀수 업게 호셨다 호를 바리새교인들이 듯고 모힐시
 <표>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마22:34)
- (4)<성>더희가 나사렛 예수씨서 지나가신다 하니
 <표>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눅18:37)
- (5)<성>맛춤 예수ㅣ 이 말숨을 긋치시매 무리들이 그 ㄱ르치심을 이상히억임은
 <표>예수께서 이 말숨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마7:28)
- (6)<성>그 후에 예수ㅣ 갈닐니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곳 디베랴 바다라
 <표>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요6:1)

예문(3)~(6)의 밑줄이 있는 술어에 모두 ‘-시-’가 나타난 것은, 그 술어의 주체가 ‘예수’로 존경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를 보면, (3)(4)에서 <성>의 ‘씨서’가 <표>에서는 존칭도가 중립인 ‘가’로 나타나 있다. 한편 (5)(6)

1) 본고에서 동명사형으로의 변형이란 다음의 (2)와 같은 변형으로, 동사의 연용형이 접두사와 결합된 형태를 가리킨다.
 (1) だれを待っていますか。 (2) だれをお待ちですか。

은 (3)(4)와는 반대로, <표>에서 ‘꺼서’가 출현한데 반해, <성>에서는 ‘띄서’가 아닌 ‘ㅣ’로 표시되고 있다. 이 ‘ㅣ’를 조사로 볼 것인가 휴지(休止) 표시로 볼 것인가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지지만²⁾, ‘ㅣ’를 조사로 간주하더라도 거기에는 ‘띄서’와 같은 존경의 의미는 없다. 다음 예문 (7)(8)이 그 배경을 설명한다. 즉 예문 (7)에서 ‘도마’는 예수의 제자이고, (8)의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한 로마총독으로 성서의 관점에서는 전혀 존경대상이 될 수 없는 인물들이다.

(7)도마ㅣ 굴으더 주어 가시는 곳을 아지못허거늘 그 길을 엇지 알겠습노잇가
(요14:5)

(8)빌라도ㅣ 굴으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박아주랴 하니 (요19:15)

한편 <표>에는 없고 <성>에만 있는 것으로 존경의 특수어휘 ‘굴으샤디’가 있다. 이것이 존경어가 되는 것은 존경대상에 해당하는 주체와만 호응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굴으더’가 선택된다.

(9)예수ㅣ 굴아샤디 오히려 하늘님의 말씀을 듯고 직히논자는 복이 잇다 하시
더라 (눅11:28)

(10) 베드로가 굴으더 이 사롭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니 (눅22:58)

이상을 정리하면 이렇다. 즉 한국어 주체존경표현은 문어와 구어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주체존경을 나타내는 필수형태는 술어부분의 존경보조어간 ‘-시-’이며, 임의적으로 조사 ‘띄서(꺼서)’가 주체명사에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2)일본어 <文語訳聖書>와 <新共同訳聖書>

일본어 <文語訳聖書>와 <新共同訳聖書>의 주체존경표현은 큰 차이가 있다. 즉 <文語訳聖書>(이하 <文>)에서는 주체존경이 보조동사 「給ふ」 하나로 실현되는데 반해, <新共同訳聖書>(이하 <新>)에서는 「給ふ」가 사라지고 대신에 「お~になる」와 「~れる」, 「~てくださる」 및 동명사형 등 다양한 형식으로 분화되어 나타난다. 두 개의 성서를 통해 이를 확인해 가기로 하는 바, 먼저 문어역의 「給ふ」가 구어역에서 「~れる」로 실현되는 것들이다.

(11)<文>イエス山を下り給ひしとき、 (마8:13)

2) 전무용(2011)pp.57~62 참조.

3) 성서의 출처포기는 일본어 성서의 경우도 한국어로 표시하기로 한다. 이는 본 논문이 한국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 <新>イエスが山を下りられると、
 (12)<文>イエス、カペナウムに入り給ひしとき、 (마8:5)
 <新>さて、イエ스가カファルナウムに入られると、
はじめ つく たま
 (13)<文>元始に神天地を創造し給へり (창1:1)
 <신>初めに、神は天地を創造された。

(11)~(13)은 모두 주체인 「イエ스」와 「神」를 높이고 있는 주체존경표현으로, <文>의 「給ふ」에 의한 존경표현이 <新>에서는 「~れる」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문어형 「~(ら)る」에 존경의 의미가 있음에도, 일본어 성서 <文>에서는 그 예문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은 「給ふ」가 구어역에서 「お~になる」로 실현되는 예이다.

- (14)<文>『師よ、何処にゆき給ふとも、我は従はん』
 <新>「先生、あなたがおいでになる所なら、どこへでも従って参ります」 (마8:19)
 (15)<文>『されど今にても我は知る、何事を神に願ひ給うとも、神は与へ給はん』
 <新>「しかし、あなたが神にお願いになることは何でも神はかなえてくださると、わたしは今でも承知しています。」 (요11:22)

예문 (14)(15)에서 보는 대로, 문어역의 「給ふ」가 구어역에서 「お~になる」형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와 같이 <新>에는 주체존경표현이 크게 「~れる」와 「お~になる」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둘의 구분 혹은 의미상 경계가 문제로 될 수 있다. 이성규(2011a)에서는 <新>의 두 가지 경어형태를 ‘인간 예수’인가 ‘신으로서의 예수’인가 하는 [경의 주체]에 대한 구분 등에 의해 선택된다고 한다⁴⁾.

한편 <文>의 「給ふ」는 <新>에서 (16)(17)에서 보듯이 「~てくださる」형으로도 실현된다.

- かりいれ はたらきびと
 (16)<文>『この故に収穫の主に、労働人をその収穫場に遣し給はんと求めよ』(마9:38)
 <新>「だから、収穫のために働き手を送ってくださるように、収穫の主に願いなさい。」

4) 이성규(2011a)는 일본어 <新共同訳聖書>에서 「~れる」와 「お~になる」의 구분은 일본어 교육 등에서 밝히고 있는 기준과는 다르다면서 크게 다음 네 가지 조건이 관여한다고 한다. 첫째, ‘인간 예수’인가 ‘신으로서의 예수’인가 등의 [경의주체 구분]. 둘째, 당해 행위가 추상도가 낮은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사항인가 아니면 추상도가 높은 사항인가 하는 [행위내용의 범주적 차이]. 셋째, 지문인가 대화문인가 하는 [문체적 차이]. 넷째 장중도라는 [화체적 차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れる」형이 「お~になる」형에 비해 존경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17)<文>弟子たちは御許にゆき、起して言ふ『主よ、救ひたまへ、我らは亡ぶ。』(마8:25)

<新>弟子たちは近寄って起こし、「主よ、助けてください。おぼれそうです」と言った。

「給ふ」가 「~てくださる」로 실현되는 현상은 혜택을 주고받는 수익표현에서 나타나며, <文>에서 이러한 표현은 주로 예문 (17)에서 보듯이 「給ふ」의 명령형 「給へ」 형식을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에서는 (18)<新>에서 보듯이 주동사가 「て」 형이 아니라 동명사형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18)<文>『されど汝なにか為し得ば、我らを憫みて助け給へ』(눅9:22)

<新>「おできになるなら、わたしどもを憐れんでお助けください。」

<文>의 보조동사 「給ふ」가 <新>에서 동명사형으로 실현되는 예를 몇 개 더 들어보기로 한다. 예문 (19)는 평서문의 문말술어에서, 그리고 (20)은 문중에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주체존경이라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19)<文>『心安たかれ、起て、なんちを呼び給ふ。』

<新>「安心たしなさい。立ちなさい。お呼びだ。」(막10:49)

(20)<文>かくて言ひたまふ『この故に我さきに汝らに告げて、父より賜はりたる者ならずば我に来るを得ずと言ひしなり』

<新>そして、言われた。「こういうわけで、わたしはあなたがたに、『父からお許しがなければ、だれもわたしのもとに来ることはできない』と言ったのだ。」(요6:65)

그 외에도 동명사형이 존경형태로 기능하는 것은 <新>에서 많이 발견된다.

(21)a.ファラオが、「あなたは何歳におなりですか」とヤコブに語りかけると、(창47:8)

b.「全イスラエルの期待は誰にかかっているとおお思いですか。」(삼상9:20)

c.「群衆があなたに押し迫っているのがおお分かりでしょう。」(막5:31)

예문 (21)의 술어는 모두 동명사에 의한 명사형 술어이고, 이들은 모두 주체존경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이 동명사형은 주체존경만이 아니라 객체존경형태로도 기능하는 것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2.2에서 논하겠지만, 예문 (18)~(21)의 <新>에 나타난 동명사형이 모두 주체존경형태로 기능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기존의 「~れる」「お~になる」형에 집중되던 술어에서의 일본어 주체존경표현 범위가 이제는 이 동명사형에까지 확대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文>에서 「給ふ」와 결합하는 일부 동사는 <新>에서 특수어휘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문 (22)<文>의 「言ひ給ふ」가 <新>에서 「おっしゃる」로 실현된 것이 실례이다.

(22)<文>弟子たち言ふ『群衆の押し迫るを見て、誰が我に触りしぞと言ひ給ふか』(막5:31)
 <新>そこで、弟子は言った。「群衆があなたに押し迫っているのがお分かりでしょう。それなのに、『だれがわたしに触れたのか』とおっしゃるのですか。」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일본어는 <文>에서 「給ふ」에 의해 표현되던 주체 존경표현이 <新>에서는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통어적 혹은 의미적 차이를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어 성서언어에서는 이중경어형태도 발견된다. 다음 (23)의 예문이다.

(23)<文>^{つかひ また}エホバの使者又彼に言ひけるは^{ほら}汝^{をとこのこ}孕めり^{そのな}男子を生まん其名をイシマエル(神
^{きこしめす}聴知^{くるしみ}と名づくべし^{きこしめ}エホバ汝の艱難を聴知し給へばなり (창16:11)

<新>主の御使いはまた言った。「今、あなたは身ごもっている。やがてあなたは男の子を産む。その子をイ슈마エルと名付けなさい。主があなたの悩みをお聞きになられたから。」

예문 (23)이 이중경어라는 것은 밑줄부분에서 확인된다. 즉 <文>의 「^{きこしめ}聴知^{きこしめ}給ふ」는 「^{きこしめ}聞く」의 존경어 「^{きこしめ}聴知す」와 존경보조동사 「給ふ」가 결합한 소위 이중경어표현이다. 이것이 <新>에서는 「お聞きになる」라는 존경표현에 다시 「~れる」가 붙으면서 이중경어형태로 표현되고 있다⁵⁾. 다음 예문 (24)의 「^おお方」도 존경의 접두사 「^おお」와 자체 존경어 「^{かた}方」가 결합된 형태로 이중경어형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⁶⁾.

(24)「正しい者を悪い者と一緒に殺し、正しい者を悪い者と同じ目に遭わせるよ

5) 高見沢孟는 「お嬢様がご入学された」와 같은 이중경어는 바른 일본어 표현이 아니라고 하지만, 성서언어를 통해 보면 일본어에서 이중경어는 긴 역사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高見沢孟(2004), 『新・はじめての日本語教育1』、アスク、pp.182~183.
 6) 접두사와 접미사가 함께 관여하는 「御主人様」 혹은 「お父様」 같은 것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중경어형태로 분류가능하다.

うなことを、あなたがなさるはずはございません。全くありえないことです。全世界を裁くお方は、正義を行われるべきではありませんか。」

(창18:25)

이상으로 일본어 성서의 문어역과 구어역 비교를 통해 일본어의 주체존경표현의 변화양상을 살폈다. 분석결과는 한국어와는 달리 문체의 변화에 따라 표현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문어체에서는 보조동사 「給ふ」의 개입이 문형으로서 주체존경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식였으나, 구어역에서는 「~れる」「お~になる」「~てください」 그리고 동명사와 특수어휘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어역과 구어역 모두에서 존경표현 형식이 중복되는 소위 이중경어형태가 발견되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살핀 두 나라의 문어역 성서와 구어역 성서에 나타난 주체존경표현의 변화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어	일본어
문어역	(피서) ~시	V+給ふ
구어역	(끼서) ~시	V~れる お~になる V~てください 동명사 특수어휘

이 ‘표’를 근거로 두 언어의 주체존경표현을 정리하면 이렇다. 즉 한국어는 문어와 구어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대해, 일본어는 문체가 바뀌면서 주체존경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면서 통사 혹은 의미적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2.2 객체존경표현

객체존경표현은 동작의 행위자를 높이는 주체존경과 달리 여격이나 대격명사 등으로 나타나는 객체를 화자가 높이는 표현방법이다. 한국어 성서와 일본어 성서 모두에서 객체존경표현이 발견되기는 하나, 주체존경표현과는 달리 두 언어 사이에 규칙적인 대조는 쉽지 않다. 이것은 결국 두 언어 모두 객체존경표현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그 원인은 존경대상이 객체인 만큼 동작주인 주체가 존경대상이 될 때보다는 의사전달과정에서 시점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두 언어의 성서에 나타

난 객체존경표현을 찾아 분석하면 바로 입증된다.

우선 한국어 성서의 경우, <표>에서 보조동사 ‘드리다’가 문법적 형식으로 그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나, <성>에는 ‘엿조오다’⁷⁾ ‘피시다’ 등의 특수 어휘 외에 문형으로 간주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에 일본어 성서의 경우 <文>에서는 보조동사 「まつる」「たてまつる」가, <新>에서는 문형으로 「お~する」가 발견됨으로서 한국어에 비해 객체존경에 대한 표현방식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어에서도 <文>에서 보이던 객체존경표현이 <新>에서는 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객체존경표현은 상황이 갖춰졌다고 해서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어는 주체존경표현에서 본 ‘계서’처럼 객체존경표현에도 특별한 조사 ‘띄(께)’가 있어서, 술어부분의 문형에 나타나는 공백을 메우고 있다.

이제 이상의 것들이 한국어 성서와 일본어 성서 각각에서 통시적으로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입증해 가기로 한다.

1) 한국어 <성경전서>와 <표준새번역 성서>

객체존경표현이 발달하지 않은 한국어에서 객체존경표현을 논할 때는 술어 형태보다 오히려 앞에서 언급한 여격조사 ‘띄(께)’에 먼저 주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띄(께)’가 ‘고흐다’ ‘엿조오다’ ‘드리다’ ‘모시다’ ‘아뢰다’ ‘뵈다’ 등의 특수한 동사들과 호응하면서 그 표현을 노정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문을 통해 설명하기로 한다.

(25)<성>오직 너희는 골으디 누구든지 아버의게나 어미의게 말흐디 내가 부모의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느님의 드러다 훈주

<표>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하고 말만 하면(마15:5)

(26)<성>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엇는지라 혹이 곳 예수^의 엿조온디

<표>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막1:30)

(25)(26)의 <성><표>에 있는 ‘(말씀)드리다’ ‘엿조오다’ 등이 객체존경표현을 실현하는 술어들인데, 이들 문에는 공통적으로 ‘띄(께)’라는 여격조사가 선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에서 조사 ‘띄(께)’는 ‘드리다’ ‘엿조오다’

7) ‘엿조오다’의 ‘-조오-’는 ‘-소오-’, ‘-습-’과 함께 15세기 국어에서는 객체높임의 선어말어미였으나, <성경전서>에서는 ‘엿조오다’ 외에 이들 형태가 개입된 동사가 발견되지 않음을 인해 특수어휘로 다루기로 한다.

등 겸손의 의미를 가진 어휘와 호응하면서 객체존경을 대표하는 문법적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주체존경표현에서 ‘띄셔(꺼서)’가 필수요소가 아닌 것처럼, 이 ‘띄(꺼)’ 역시 객체존경을 표현하기 위한 절대요소는 되지 못한다. 예문 (27)을 보면, ‘아뢰다’가 객체존경표현을 만드는 술어인데도, 여격조사로 ‘꺼’가 아닌 ‘에게’가 선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7)<표>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삼하:14: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어에 일정한 형식이 없는 한국어에서 조사 ‘띄(꺼)’가 객체존경표현의 실현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

(28)<성>예수띄 엿즈와 굴으디 맛당히 오실이가 션싱님이오닛가 우리가 다른이를 기드리오릿가 (마11:3)

<표>예수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하고 물어 보게 하였다.

(28)을 보면, <성>에서는 ‘엿즈오다’라는 겸양어로 인해 ‘예수띄’를 ‘예수님께’로 바뀌어도 큰 저항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28)<표>처럼 조사 ‘꺼’외에는 그것과 호응할 수 있는 어휘나 문법형태가 없는 경우는 다르다. 사실 (28)<표>도 술어 ‘물어 보게 하였다’를 ‘여쭙게 하였다’로 바꾸면, ‘예수꺼’를 ‘예수에게’로 교체해도 된다. 하지만 ‘물어 보게 하였다’처럼 술어에 경어도에서 중립적인 어휘를 선택한 경우라면, 조사 ‘꺼’를 선택해야 비로소 예수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실현된다. 따라서 한국어 객체존경표현에서는 문어나 구어를 불문하고 여격조사 ‘띄(꺼)’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때 객체에 대해 존경심을 갖는 이는 동작의 주체가 아니라,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화자라는 점은 명백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 (29)를 보기로 한다.

(29)a. 제자들이 다가와 예수께 말하였다. (마13:10)

b. 그 때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27:13)

(29a)의 주어는 예수의 제자들이고, (29b)의 주어는 예수를 재판한 로마의 총독 빌라도이다. 그러나 이 두 문 모두에서 예수에게 ‘꺼’라는 존칭조사를 붙일 수 있는 것은 문의 주체가 아니라 이 글의 화자가 예수에 대해 경의를 갖

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어 객체존경이 꼭 여격명사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즉 ‘모시다’ ‘뵙다’같은 술어는 대격인 객체를 높인다. 그리고 이때는 조사 ‘께’가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경표현은 겸양의 의미를 갖는 술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아래의 예문 (30)이다.

- (30)a. <표>“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 들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마8:8)
- b. <표>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마28:17)

(30)에서 존경대상은 각각 ‘주님을’과 ‘예수를’로, 대격인 ‘를’격으로 실현된 객체들이다. 이러한 경우 한국어의 객체존경표현은 여격객체와는 달리 술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한국어에서 객체존경을 나타내는 문법형태로서 ‘드리다’가 보조동사로 기능하는 ‘어 드리다’형태가 있다. 그러나 이 ‘어 드리다’ 형태는 <성>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표>에만 몇 개 나와 있었다.

- (31)<표>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지내고 나서, 예수께로 가서 알려드렸다.
- (<성>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거두어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마14:12)
- (32)<표>그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 (<성>스자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주매) (눅22:43)

(31)(32)를 보면 <표>에서 ‘어 드리다’형태가 개입된 ‘알려드리다’나 ‘북돋워드리다’가 <성>에서는 각각 ‘고하니라’ ‘주매’ 등으로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어 ‘어 드리다’형태가 객체존경표현을 실현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은 그 역사가 결코 길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때문인지 <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에 나와 있는 ‘어 드리다’형태는 위의 2개 외에 (마 22:19)과 (눅13:1)의 ‘가져다 드렸다’와 ‘일러드렸다’뿐이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의 객체존경표현은 기본적으로 조사 ‘끼(께)’와 몇 개의 특수어휘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한국어에서는 객체존경표현이 문법범주로 인정받을 만큼 발달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일본어 <文語訳聖書>와 <新共同訳聖書>

일본어 성서의 두 역본에 나타난 객체존경표현의 차이는 우선 주체존경표현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즉 주체존경표현의 경우 문어역과 구어역이 각각 형태를 달리 할지라도 두 역본 모두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실현되고 있었으나, 객체존경표현은 그렇지 않다. 우선 <文>에서는 아주 드물게만 나타나던 객체존경표현이 <新>에서 급격히 늘어난다. 때문에 두 역본에서 공통적으로 이 표현이 실현되는 예는 극히 일부로 (33)~(35) 같은 것이 있었다.

(33)<文>かくて我エルサレムに^{みたてまつ}帰り、宮にて祈りをるとき、我を亡れし心地して主を見奉るに、我に斯く言ひ給ふ、(행22:17)

<新>「さて、わたしはエルサレムに帰って来て、神殿で祈っていたとき、我を忘れた状態になり、主にお会いしたのです。」

(34)<文>百卒長こたへて言ふ『主よ、我は汝をわが屋根の下に入れまつるに^{みことば}足らぬ者なり。ただ御言のみを賜へ、さらば我が僕はいえん。』(마8:8)

<新>すると、百人隊長は答えた。「主よ、わたしはあなたを自分の屋根の下にお迎えられるよう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ただ、ひと言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そうすれば、わたしの僕はいやされます。」

(35)<文>ガリラヤなるベツサイダのピリポに^{まみ}来たり、請ひて言ふ『君よ、われらイエスに謁えんことを願ふ』(요12:21)

<新>彼らは、ガリラヤの벳사이다出身の파리포のもとへ来て、「お願いです。イエスにお目にかかりたいのです」と頼んだ。

(33)<文>에서는 보조동사 「奉る」^{たてまつ}에 의해, (34)<文>에서는 「まつる」에 의해 각각 「に」격과 「を」격으로 나타나는 객체 「主」와 「汝」에 대한 존경표현이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新>에서는 「お~する(できる)」라는 문형으로 동일한 의미가 실현되고 있다. 한편 (35)에서는 <文>과 <新> 모두 「謁^{まみ}ゆ」와 「お目にかかる」라는 특수어휘로 객체존경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어 성서에서도 객체존경표현에는 한계가 발견된다. 즉 「に」격이나 「を」격으로 실현되는 객체에 존경해야 할 대상이 위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존경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체존경표현과 다른 점이고, 이러한 것은 (36)(37)에 의해 설명이 가능해진다.

(36)<文>ここにイエス言ひ給ふ『サタンよ、退け主なる汝の神を拜し、ただ之^{これ}にのみ^{つか}事

^{まつ}
へ奉るべし』と録されたるなり』(마4:10)

<新>すると、イエスは言われた。「退け、サタン。『あなたの神である主を拝み、ただ主に仕えよ』と書いてある。」

(37)<文>即ち謙遜の限をつくし、涙を流し、ユダヤ人の計略によりて迫り来し艱難に耐へて主につかへ、(행20:19)

<新>すなわち、自分を全く取るに足りない者と思い、涙を流しながら、また、ユダヤ人の数々の陰謀によってこの身にふりかかってきた試練に遭いながらも、主にお仕えしてきました。

(36)을 보면, <文>에서는 객체존경표현이 보조동사 「^{まつ}奉る」에 의해 실현되고 있으나, <新>에서는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형태가 아무 것도 나타나 있지 않다. 반면에, (37)은 (36)과 정반대이다. 즉 <文>에서 객체인 「主に」에 대해 특별한 존경형식을 보여주지 않던 것이 <新>에서는 「お仕えする」라는 형식을 빌어 객체존경표현을 명확히 실현시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객체존경표현이 주체존경표현에 비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주체존경표현은 주체에 존경대상이 위치하면 어떤 형식을 빌든 반드시 드러나는데 비해, 객체존경표현은 가변적이어서 동일한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도 혹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기로 한다.

(38)<文>マルタ、イエスに言ふ

<新>マルタはイエ스에言った。 (요1:36)

(39)<文>かくてガリラヤに往き給へば、ガリラヤ人これを迎へたり。

<新>ガリラヤにお着きになると、ガリラヤの人たちはイエ스를歓迎した。 (요4:45)

(38)(39) 모두 객체인 「に」 격 혹은 「을」 격 명사에 성서의 주인공인 「イエス」가 위치하고 있음에도⁸⁾ 술어부분에 아무런 존경표시가 없다. 예문 (39)를 통해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한다. (39)종속절의 「お着きになる」라는 존경표현은 생략된 주체 「イエス」에 대한 존경표시임이 확실하다. 동일한 존경대상인 「イエス」가 주절에서는 「을」 격을 수반한 객체로서 위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존경표현이 술어부분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존경표현의 실현은 존경대상이 문의 주체인가 객체인가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존경표현의 기본은 주체명사에 있다는 필자의 앞선 분석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

8) (39)<文>의 대명사 「これ」는 「イエス」를 나타낸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시적 관점에서 일본어 성서를 살펴보면 <文>에 비해 <新>에서 객체존경표현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것은 다음 (40)(41)의 예문들이 입증해 준다. (40)(41)의 밑줄 부분을 보면, <文>에는 객체명사에 대한 아무런 존경표시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新>에서는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0)<文>ペトロ、イエスを傍かたへにいひしきい戒め出でて言ふ、『主よ、然しかあらざれば、此の事なんぢに
起らざるべし』 (마16:22)

<新>すると、ペトロはイエスをわきへお連れして、いさめ始めた。「主よ、とんでもない
ことです。そんなことがあってはなりません。」

(41)<文>かくて驢馬の子をイエスの許ろばにひ牽おのきおきたり、己が衣をその上にかけて、イエスを乗
せたり。(눅19:35)

<新>そして、子ろばをイエスのところに引いて来て、その上に自分の服をかけ、イエ스
をお乗せした。

(40)(41)에서 존경대상이 되는 객체명사는 「を」 격으로 나타난 「イエス」로, <文>과 <新> 모두 공통적으로 표면에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동일한 객체명사에 대해 <文>에서는 존경표시가 없는 반면에, <新>에는 「お~する」라는 형식을 빌어 존경표현을 실현시키고 있다. 이러한 예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4복음서에만 국한시켜서 확인된 것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文語訳聖書	新共同訳聖書
マルコ8:32	(イエスを)ひきて	(イエスを)お連れして
ルカ8:20	(汝に)逢はんとて	お会いしたいと
ヨハネ4:19	(なんじを)みとむ	お見受けしまう
ヨハネ16:30	(汝に)問ふ	お尋ねする

이 수치를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반대의 경우로, <文>에서 나타났던 객체존경표현이 <新>에서 사라진 예문 (36) 같은 예는 달리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일본어 성서에서도 <文>보다 <新>에 와서 객체존경표현이 더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어 객체존경표현으로 <文>에 없었고 <新>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이 접두사 「お」를 수반한 동명사형이다.

(42)金持ちは言った。『父よ、ではお願いです。わたしの父親の家にラザロを遣わしてください。』 (눅16:27)

(42)의 동명사형 「お願い」는, 「お願いします」에서 「する」동사가 탈락된 형태로 객체존경표현을 나타내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동명사형은 앞의 예문 (18)~(21)에서 확인된 대로 일반적으로는 주체존경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나, (42)처럼 객체존경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新>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동명사형으로 「お願い」 외에 다른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을 근거로 성서에 나타난 두 언어의 객체존경표현을 비교하면 이렇다. 한국어는 술어부분에서 특별한 문형이 없이 ‘(어) 드리다’ 등의 특수한 어휘군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다만 문어와 구어를 불문하고 조사 ‘끼(께)’가 이 표현을 유도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일본어는 문어와 구어 양쪽 모두 이에 관련된 표현방식을 갖고 있다. 즉 문어는 「まつる」 「たてまつる」 등의 보조동사에 의해, 그리고 구어에서는 「お~する」라는 문형에 의해 이 표현이 실현된다. 따라서 두 언어에서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대응되는 예는 드물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⁹⁾. 그리고 이 표현은 두 언어 모두 주체존경표현에 비해 생산성이 낮게 나타난다.

3. 대자 대우

대자대우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표현법으로 술어에서는 문말어미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대자경어가 술어에서만 실현되는 것은 아

9) 두 언어의 구어역 성서에서 이 표현이 어떻게 대응되는가를 몇 개의 예문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일어나십시오.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起きなさい。お見送ります。」 (삼상9:26)

(2)“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あなたをお呼びしたのは、なすべき事を教えていただくためです。」 (삼상28:15)

(3)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シモンのおしゅうとめが熱を出して寝ていたので、人々は早速、彼女のことをイエスに話した。(막1:30)

(4)예수께서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께 항의하였다.

しかも、そのことをはっきりとお話になった。すると、ペトロはイエスをわきへお連れして、いさめ始めた。

위의 예문 대조를 통해 보면, 문형으로 대응되는 것은 (1)과 같은 예로 많지 않다. (2)는 일본어 문형이 한국어에서 특수어휘로라도 실현되지만, (3)(4)의 경우는 전혀 대응점을 찾지 못하거나, 일본어 동사부분의 표현문형이 한국어에서는 조사로만 확인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 존경표현이 소재경어의 중심이 서지 못한다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니고, 자칭 타칭의 대명사 등에서도 모습을 보인다. 그러한 대명사의 통시적 비교는 안중환(2010)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는 바, 여기에서는 술어부분으로 제한해 비교하기로 한다. 우선 한국어와 일본어 성서 각각을 문어체와 구어체로 구분해 대자대우를 비교하면 이렇다. 즉 술어부분에서 한국어 성서는 문어역에서부터 문말형태에 따른 대자대우표현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데에 반해, 일본어 성서의 경우는 아주 단순하게 실현됨으로 인해 차이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서술형만을 대상으로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¹⁰⁾.

3.1 한국어 <성경전서>와 <표준새번역성서>

문말어미로 실현되는 한국어 대자대우 표현은 대단히 복잡하지만¹¹⁾, 성서언어의 경우는 보통체와 정중체로 이원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때 보통체는 아랫사람을 향한 표현법을 가리키며, 정중체는 손윗사람에 대한 표현법을 가리킨다. 이들 보통체와 정중체의 대립을 서술형을 중심으로 보면 <성경전서>에서는 ‘-라’와 ‘-이다’라는 어미에 의해, <표준새번역>에서는 ‘-다’와 ‘-입니다’라는 어미에 의해 실현된다.

먼저 보통체로 실현되는 <성>의 ‘-라’형식과 <표>의 ‘-다’형식을 보기로 한다.

(43)<성>너희 전에 잇던 선지자를 이 곳치 핍박하였느니라 (마5:12)

<표>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44)<성>내가 올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다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9:13)

<표>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45)<성>나종사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10:22)

<표>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문 (43)~(45)의 발화상황은 예수가 제자들이나 일반인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보통체가 나타나는 상황들이다. <성>과 <표>를 비교해 보면, 한국어 성서언어의 문어와 구어 사이에서 하대표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즉 언급한 대로 일괄적으로 문어의 ‘-라’형식이 구어에서는 ‘-다’형식으로 바뀌

10) 한국어 성서 <성경전서>에는 상대높임법의 일종으로 ‘-으오-’ ‘-사오-’ ‘-자오-’ 등의 선어말어미에 의해 실현되는 공손표현이 있다. 일본어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되지 않아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굴으디 내 딸이 방장 죽엇스으나 오서서 그 몸에 손만 대시면 살겠느이다 하니 (마9:18)

(2) 예수피 옛츠와 굴으디 맛당히 오실이가 선성님이오닛가 (마11:3)

11) 일반적으로 ‘합쇼체, 해요체, 하오체, 하계체, 해체, 해라체’ 등으로 6등급하나, 학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고 있다. 한편 <성>의 ‘-라’형식에는 (43)~(45)에서 보듯이 ‘-니라’ ‘-노라’ ‘-리라’라는 세 개의 이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설명, 단정 혹은 추정 등의 모달리티성을 달리할 뿐으로 보통체로서의 대우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구어의 ‘-다’형식에도 적용된다. 즉 (43)(44)의 ‘-다’와 (45)의 ‘-이다’는 음운론적 이형태일 뿐 대우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결국 <표>에서 보이는 보통체의 통시적 변화는 모달리티성이 없어졌다는 데에서 찾아진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등장한다.

한편 정중체는 보통 아랫사람이 손윗사람을 향한 것으로, <성>에서 ‘-이다’형식였던 것이 <표>에서는 ‘-니니다’형식으로 변한다. <성>의 ‘-이다’형식에도 몇 개의 이형태가 있으나, 이들이 정중체라는 것은 <표>의 ‘-니니다’라는 ‘합쇼’체를 통해 확인된다.

(46)<성>제 좋드려 이것을 흐라 흐면 헝흐느이다 (마8:9)

<표>내 좋드려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47)<성>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던지 저는 좃치리이다 (마8:19)

<표>“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48)<성>다만 말씀만 흐셔도 제 종이 낫갯살느이다 (마8:8)

<표>그저 한 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49)<성>알아보고 굴으디 썩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잇더이다 흐거늘 (막6:38)

<표>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뽕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예문 (46)~(49)의 발화장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일반인이나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는 장면으로 정중체가 선택될 수 있는 배경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 <표> 사이에 정중체의 대표형이 다름을 볼 수 있어, 통시적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엿보게 된다. 즉 <성>에서는 ‘-이다’가, 그리고 <표>에서는 ‘-니니다’가 대표형이 된다. 한편 (46)~(49)<성>의 정중체 ‘-이다’에는 ‘-느이다’ ‘-리이다’ ‘-삽느이다’ ‘-더이다’ 라는 네 개의 이형태가 발견된다. 이들은 (43)~(45)의 ‘-라’의 이형태와 마찬가지로 각각 모달리티성을 달리하는 것들로, <표>에서 ‘-니니다’로 통일되면서 모달리티성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 결국 한국어 성서에서 발견되는 대자대우 표현의 통시적 변화는 다양했던 모달리티성이 단순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말어미에서 구분되는 한국어 대자대우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다음의 예문을 보기로 한다.

(50) <성> 굴으디 바라바로소이다 흐거늘 (마27:21)

<표>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예문(50) <성>의 ‘-로소이다’는 (46)~(49)처럼 문어의 정중체 ‘-이다’의 이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표>의 ‘-요’는 정중체는 정중체로되, (46)~(49) <표>에서 본 ‘-니다’와 동등한 정도의 정중체는 아니다. 즉 ‘-해요’체로서 ‘-합쇼’체인 ‘-니다’보다 정중도에서 떨어진다.

이상 한국어 성서의 통시적 고찰을 통해 대자대우표현의 변화를 살핀 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문어체인 <성>에서는 ‘-라’형식과 ‘-이다’형식으로 구분되던 보통체와 정중체가 <표>에서는 ‘-다’형식과 ‘-니다’형식 그리고 ‘-요’형식으로 구분되고 있어, 대자대우표현이 문어나 구어 모두에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일본어 <文語訳聖書> 와 <新共同訳聖書>

일본어 성서는 우선 <文>에서 보통체와 정중체의 구분이 형태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일본어 문어에서 일반적으로 정중체를 나타내는 「侍り」나 「候ふ」 등이 <文>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新>에서는 「-る」형과 「-ます」형, 「-だ」형과 「-です」형 등 형태상의 차이로 인해 보통체와 정중체가 구분된다. 따라서 <文>에서는 형식상 보통체와 정중체의 구분이 없었던 것이 <新>에서 분리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국어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예문들을 통해 확인하기로 한다. 먼저 예문(51)(52)이다.

(51) <文> 『汝等わが名ための爲に、もろもろの国人くにびとに憎にくまれん。』 (마24:9)

<新> 「わたしの名ためのために、あなたがたはあらゆる民たみに憎にくまれる。」

(52) <文> 彼ら見ていふ 『五つ、また魚二つあり』 (막6:38)

<新> 弟子たちは確かめて来て、言った。「五つごつあります。それに魚二匹です。」

예문(51)은 스승인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고, (52)는 제자들이 예수한테 하는 말이다. 따라서 보통체와 정중체가 문말에서 구분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은 구어역인 <新>에서 (51)의 「憎まれる」와 (52)의 「あります」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즉 「-ます」의 유무에 의해 「憎まれる」는 보통체가 되고, 「あります」는 정중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어역인 <文>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꿔 말해, (51)의 「憎まれん」이나 (52)의 「あり」라는

형태에서는 보통체와 정중체를 식별시켜줄 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다. 다른 예를 보기로 한다. 다음 예문 (53)(54)처럼 일본어 문어의 술어는 「なり」 「たり」 등 「一」 형식의 종결형이 많은데, 이들로부터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된다.

(53)<文> 『^{はたらきびと}労働人の、^{しょくもつ}その食物を得るは^{ふさわ}相應しきなり。』 (마10:10)

<新> 「働く者が食べ物を受けるのは当然である。」

(54)<文>シモン・ペトロ答へて言ふ、『なんぢはキリスト、活ける神の子なり』 (마16:16)

<新>シモン・ペトロ가、「あなたは메시아、生ける神の子です。」

성서를 참고로 하면, 예문(53)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이고, (54)는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한테 하는 말이다. 당연히 보통체와 정중체가 구분되어야 될 발화장면으로, 그것은 (53)(54)의 <新>에서 「一である」와 「一です」라는 형태의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53)(54)의 <文>에서는 둘 다 동일한 「なり」 형태를 취하고 있어, 문어역 성서에서는 이들이 분화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文>에서 「一たり」 형식을 취하는 술어를 하나 더 보기로 한다.

(55)<文>イエス彼らの信仰を見て、中風の者に言ひたまふ、『子よ、汝の罪ゆるされたり』

<新>イエスはその人たちの信仰を見て、中風の人に、「子よ、あなたの罪は赦される」と言われた。(막2:5)

(56)<文>『ラビ、見給へ、詛ひ給ひし無花果の樹は枯れたり』 (막11:21)

<新>「先生、御覧ください。あなたが呪われたいちじくの木が、枯れています。」

(55)는 예수가 일반인에게, (56)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들도 <新>에서는 「一ます」의 유무에 의해 (55)의 「赦される」와 (56)의 「枯れています」의 대우도가 다름이 드러나는데 반해, <文>에서는 둘 다 「たり」로 끝맺고 있어서 문맥의 의존 없이는 대우도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되풀이 되지만, 이상 통시적 관점에서 살핀 일본어 대자대우표현의 변화양상을 정리하면 이렇다. 즉 <文>에서는 보통체와 정중체의 구분이 없던 것이 <新>에 들어와 「一ます」 「一です」라는 형식의 유무에 의해 구분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보통체와 정중체의 구분이 없던 <文>의 대자대우표현 양태의 흔적이 <新>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한국어와의 대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목할 만하다.

(57)a. 神よ、あなたは我らを突き放されたのか。(시60:12)

b. 神よ、あなたの行進が見える。(시68:25)

c. 主よ、あなたは我々を裁くために彼らを備えられた。(합1:12)

구약성서 시편과 하박국서의 예문 (57)은 모두 하나님께서 청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말에 정중체를 나타내는 「-ます」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일본어는 대자대우표현이 기본적으로 분화되지 않은 언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상을 근거로 두 언어는 대자대우표현에서 상당한 상이점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비교의 수월성을 위해 문말표현을 보통체와 정중체로 이원화시켰을 때, 한국어는 문어와 구어 모두에서 이 둘의 구분이 명확했던 반면에, 일본어의 경우 문어에서는 이 둘이 구분되지 않다가 구어에 들어와서 비로소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는 보통체와 정중체를 불문하고 문어에서 다양했던 이형태들이 구어에 들어와 없어지면서 단순히 문체의 차이로 2원화되어가는 데에 반해, 일본어는 미분화되었던 문말표현이 구어에 들어와 둘로 분화되면서 현대어에서는 두 언어가 유사한 양상을 지니게 됨을 볼 수 있다.

4. 접사에 의한 존경표현

한국어와 일본어는 접사에 의한 존경표현(이하, ‘접사존경’)이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다만, 한국어의 경우는 접미사 ‘-님’에 의해서만 표현되는 데 대해, 일본어는 「お-」「ご-」「-様」「-殿」 등 다양한 접두사와 접미사에 의해 존경표현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접사에 의한 존경표현이 두 언어의 성서에서는 통시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비교하기로 한다.

접사경어에 대한 두 언어 성서의 통시적 고찰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별도의 항에서 다루어야 하는 배경을 말하면, 접사존경은 대자경어와 소재경어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 예문(58)에서 두 언어 접사는 대자경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데 반해, (59)의 경우는 소재경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58)a.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마20:33)

b. 『御主人様、御主人様、開けてください』と言った。 (마25:11)

(59)a.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눅1:46)

b.それから、イエスは御自分がメシアであることをだれにも話さないように、と弟子たちに命じられた。 (마16:20)

1) 한국어 <성경전서>와 <표준새번역성서>

이미 언급된 대로, 한국어 성서에서 명사에 붙어 존경을 나타내는 접사는 ‘-님’밖에 없고, 이 ‘-님’은 <성>과 <표>에 공통적이다. 예문 (60)이 보기에 해당한다.

(60)<성>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이릿가
(마19:16)

<표>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지만 <성>에서 ‘-님’에 의한 접사존경어는 ‘하나님’과 ‘선생님’밖에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이 <표>에 들어와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예이다.

(61)<성>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쥬여 만일 쥬시어든 나를 명하시 몰 우르 오라 하시셔 혼디 (마14:28)

<표>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61)<성>의 ‘쥬여’는 호칭으로서 존칭어이고, 뒤에 나오는 ‘쥬’는 단순한 존칭어이다. 그런데 이들이 <표>에서는 모두 ‘주님’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곧 명사 ‘주(쥬)’ 자체가 <성>에서는 존경어였으나, <표>에서는 존경도가 중립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표>에 나타나는 이러한 존경도 격하현상을 접미사 ‘-님’이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접미사 ‘-님’의 발달로 인해 자체 존경어인 어휘의 양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다음 예문 (62)에서 ‘님군’이 ‘임금님’으로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62)<성>사울의 신하가 가로되 하느님의 식히신 악귀가 님군을 번외케 하니(삼상16:15)

<표>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

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한국어 성서에서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는 ‘-님’이라는 접미사 하나인데, <성>과 <표>에서는 이 ‘-님’의 생산성 변화가 보인다. 참고로 <표>에서는 ‘하나님, 주님, 주인님, 선생님, 임금님, 장군님’ 등이 등장한다.

2) 일본어 <文語訳聖書>와 <新共同訳聖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일본어 성서에서 접사존경은 접두사와 접미사에 모두에 의해 실현되나, <文>과 <新>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즉 <文>에서는 존경의 의미를 갖는 접사로 접두사만이 기능할 뿐, 「-さま」 등의 접미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新>에서는 그러한 접미사도 발견되나, 여전히 접두사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한편 존경을 나타내는 접두사의 경우, <文>에서는 「み-」 하나밖에 없던 것이 <新>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일본어 성서언어에서는 「お茶」의 「お-」와 같은 소위 미화어 기능을 하는 접두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성서에 나타난 일본어 존경접사의 통시적 변화를 볼 터인데, 그 이전에 먼저 왜 이들 접사가 존경형태로 분류되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63) <文> あゝ神よ…^{あはれみ}なんぢの^{とが}憐憫のおほきによりてわがもろもろの愆をけしたまへ(시51:1)

<新> 神よ、…^{おんあわ}深い御憐れみをもって背きの罪をぬぐってください。

(64) <文> イエス異なりたる姿にて現れ給ふ (막16:12)

<新> イエスが別の姿で御自身を現された。

(63)(64)의 접두사 「おん-」이나 「ご-」는 <文>에 없던 것으로 <新>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63)의 <文>과 <新>에서 밑줄 부분을 보면, <新>의 「御憐れみ」는 <文>의 「なんぢの憐憫」를 대신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なんぢ」는 곧 문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神」를 지칭하기 때문에, <新> 「御憐れみ」의 「御-」이 존경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임이 드러난다. (64)도 동일하다. <新>에서 새로 나타난 「御自身」은 곧 ‘예수 자신’을 가리키며, 성서에서 ‘예수’는 절대높임 대상임을 통해서 이 「御-」 역시 존경의 접두사임이 확인된다.

그럼 이제 일본어 성서 <文>과 <新>에서 존경을 나타내는 접사의 변화를 살피기로 한다. 먼저 <文>의 경우로, <文>에는 「-さま」 등 존경의 의미를 지닌 접미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文>에서 존경을 나타내는 접사는 모두

접두사임을 확인해 둔다. 다음의 예이다.

- (65)a. ^{みことば} ^{たま} ^{しもべ} ただ御言のみを賜へ、さらば我が僕はいかん。 (마8:8)
- b. 『^{これ} ^{みでし} 之を御弟子たちに連れ来りしに、^{いや} ^{あた} 医すこと能はざりき』 (마17:16)
- c. 『^{まむし} ^{みいかり} 蝮の裔よ、誰が汝らに、来らんとする御怒を避くべき事を示したるぞ。』 (마3:7)

(65)에서 문제의 단어들을 보면 어종 혹은 출처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65a)의 「言」^{ことば}는 일본 고유어 명사, (65b)의 「弟子」는 한자어 명사, (65c)의 「怒」^{いかり}는 동사 「怒る」의 명사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나타내는 접두사는 모두 「御-」^み로 동일하다¹²⁾. (65)의 예어 외에 <文>의 마태복음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일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66) ^{みつげ} ^{みたま} ^{みつかい} ^{みくに} ^{みもと} ^{みこころ} ^{みて} ^{みかお} 御告、御靈、御使、御国、御許、御意、御手、御顔……

<新>에서도 일본어 존경접두사는 여전히 「み-」로 대표된다. 그러나 <新>에서 존경표현 중에 접두사에 의존하는 것이 많아지면서, 접두사도 「お-」 「ご-」 「おん-」 등이 새로 등장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다. 예문 (67)이다.

- (67)a. ^み イエスが御言葉を語っておられると、 (막2:2)
- b. ^{おん} 御自ら世界を正しく治め国々の民を公平に裁かれる。 (시9:9)
- c. 人々は盲人を呼んで言った。「安心しなさい。立ちなさい。お呼びだ。」 (막10:49)
- d. 「たとえ御一緒に死ななければならなくなくても、あなたのことを…」 (막14:31)

12) <文>의 구약성서는 明治訳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접두사 「み」가 다양한 한자로 표시되고 있다. 소위 ‘아테지(当て字)’로, 이는 표기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이며, 다음의 예에서 「事」 「聖」 「容」 「能」 등이 그것이다.

- (1) われ心をつくしてエホバに感謝しそのもろもろの奇しき^{くす}事^{みわざ}迹をのべつたへん (시9:2)
- (2) されどわれは義にありて^{みかお}聖^{みすかた}顔^{あまた}をみ目さむるとき^{あまた}容^{あまた}光^{あまた}をもて飽^{あまた}足^{あまた}ることをえん (시17:15)
- (3) エホバは^{みちから}能^{みちから}刀^{みちから}をあらはしてみづ^{みちから}からを高くしたまへ (시21:13)

(67)처럼 <新>에서 출현하는 존경접두사의 분포를 살펴보면, 크게 둘로 나뉜다. 고유어에 붙는 것과 한자어에 붙는 것으로, 전자는 다시 「み-」「おん-」「お-」 셋으로 나뉘고 후자에는 「ご-」만이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는 현대일본어 일반과 공통되지만, 전자는 성서언어가 보이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일본어 고유어에 붙는 접두사 중 「お-」의 출현은 성서에서는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즉 「お~になる」「お~ください」나 「お~する」와 같은 문형, 혹은 이들 문형에서 「になる」나 「する」가 생략된 조건일 때에만 출현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68)おできになります(막1:40)、お与えください(시17:14)、お納めした(막16:6)、お呼びだ(막10:49)、お願いします(눅16:27)、

한편 「み-」와 「おん-」의 구분을 위한 기준은 확실치 않다. 다만 <新>에서 이들이 관여한 어휘들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69) 「御^み-」 : 御名(마6:9) 御旨(시5:13) 御力(시132:8)、御救い(시67:3)、御怒り(시78:50)、御心(마6:10) 御足(시132:7)…
- 「御^{おん}-」 : 御目(시5:6)、御耳(시18:7)、御自ら(시9:9)、御計らい(시40:6)、御憐れみ(시51:3)、御慈しみ(시51:3)、御父(행2:33)…

한편 <新>에서는 「-さま」처럼 존경의 의미를 지닌 접미사, 그리고 「御~様」처럼 접두사와 접미사가 조합된 것들도 새롭게 등장한다. 다음의 (70)(71)이 실례이다.

- (70)a. 『神様、罪人のわたしを憐れんでください。』 (눅18:13)
 b. 「イエスさま、先生、どうか、わたしたちを憐れんでください」と言った。(눅17:13)
 (71)ほかのおとめたちも来て、『御主人様、御主人様、開けてください』と言った。(마25:11)

그러나 이러한 형태가 성서에서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이다. 가령 <新>에서 ‘하나님’이 「神様」로 표기된 곳은 검색 결과 전체 여섯 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神」로 표기되고 있다. 「イエスさま」역시 예로 든 누가복음에서 단 한번 나타날 뿐이다. 결국 일본어 성서에서 접사에 의한 존경표현은 접두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5.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성서의 통시적 비교를 통해, 두 언어의 대우표현이 성서언어에서는 어떤 변화과정을 보이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성서번역이 완역된 것은 1900년을 전후로 유사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룬 통시적 시간대는 현재를 기준으로 100여년 사이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기간은 현대어와 직접적 관계를 맺는 만큼 나름의 연구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두 언어 성서의 텍스트 성격, 즉 문어체에서 구어체로의 변환이라는 공통된 특징도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갖게 한다고 판단한다. 이하 본고의 연구결과를 정리한다. 본고는 두 언어의 대우표현 비교를 위해 두 언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세웠다. 소재경어와 대자경어, 그리고 접사에 의한 경어표현이 그것이다.

소재경어는 주체존경표현과 객체존경표현으로 구분되는 바, 주체가 높임의 대상일 경우 두 언어는 공히 어떤 형태로든 표현방식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문어체인 <성>과 구어체인 <표>를 불문하고 ‘-시-’에 의해 주체존경이 표현되는 한국어와 달리, 일본어의 <文>과 <新> 사이에는 큰 변화가 보였다. 즉 <文>에서는 보조동사 「給う」만으로 실현되던 주체존경표현이 <新>에서는 「お~になる」「~られる」「~てくださる」 그리고 동명사형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의미영역을 세분화시키고 있었다. 한편 객체존경표현의 경우, 한국어는 ‘드리다’ 등 몇 개의 특수한 어휘에 의해 실현될 뿐 문형으로 독립시킬 만한 특별한 문법소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본어의 경우 <文>에서는 보조동사 「奉る」「まつる」가 그리고 <新>에서는 「お~する」라는 문형이 문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객체존경이 소재경어의 중심이 있지 않은 만큼 두 언어 사이에서 이 객체존경표현이 자연스럽게 대응되는 예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은 대자대우표현이다. 대자대우표현은 문말형태에 의해 실현되는 바, 성서의 문어역에서 두 언어는 상당한 상이점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우선 한국어는 ‘-라’체와 ‘-이다’체로 보통체와 정중체가 엄밀히 구분되고 있는데 반해, 일본어는 이 둘이 통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어역 성서에서는 두 언어의 대자대우표현이 유사한 경향을 띠게 된다. 즉 한국어는 ‘-다’체와 ‘-디니다’체로 형태의 변화는 따르나 문어와 마찬가지로 보통체와 정중체가 유지되고 있고, 일본어는 구어역에서 정중체를 나타내는 「-ます」「-です」가 생성되면서 보통체와 정중체라는 대립을 보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접사에 의한 경어표현이다. 한국어는 문어 구어 모두 접미사 ‘-

님'만이 그 기능을 담당하는데 대해, 일본어는 문어역에서는 전적으로 「みー」라는 접두사만이 그 기능을 담당하다가 구어역에 들어와 많은 변화를 낳는다. 즉 접두사 「みー」가 「みー」「おんー」「おー」「ごー」등으로 분화될 뿐만 아니라 「一さま」라는 접미사도 몇 곳에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두 언어의 대우표현에 대한 대조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통시적 비교 결과를 근거한다면 대조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배경을 상당부분 해결되리라고 사료된다.

【参考文献】

- 고영근(1983), 『国語文法の 研究』, 탑출판사.
- 나찬영(2008), 『중세 국어문법의 이해』, 교학연구사. p277
- 신혜경(1997?), 「성서에 나타난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우표현의 비교연구」, 사회언어학5권 2호
- 안증환(2008), 「통시적 대조자료가 되는 한국과 일본의 성서」, 『한국일본학보』 36, 일본문화학회p72.
- _____ (2009), 「성서언어에서 본 한국어와 일본어의 인칭대명사」 『한국일본학보』 40, 한국일본학회, pp.49~62.
- 이성규(2011b), 「ナル형 경어와 レル형 경어의 사용실태」, 『日本學報』 87
- 李翊燮·任洪彬(1983), 『国語文法論』, 学研社, PP228~234
- 전무용(2011), 「한국어 번역성경의 문체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pp70~85.
- 한 길(2002), 『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역락. pp330~343
- 北条淳子(1978), 「初級における敬語の問題」, 『日本語教育』 35、pp24~26

要 旨

本稿は韓国と日本との聖書言語をもとに、通時的観点から両言語の待遇表現を比較するとともに目的がある。両言語における聖書翻訳は19世紀末から今まで約100年の間に何回も行われている。だから、この期間における両言語の通時的研究は直ちに両言語の現代語の有り様につながっていると言える。待遇表現をテーマとする本稿の研究意義もそこにある。

さて、本稿では両言語の待遇表現を素材敬語と対者敬語、そして接辞による敬語表現に分けて比較したところ、研究内容は次のようにまとめられる。第一、主体尊敬表現と客体尊敬表現に分けられる素材敬語である。主体尊敬表現は両言語の文語訳聖書で各々「～し～」と「～給う」の形で現れる。一方、口語訳では、韓国語の場合は文語訳との間に何の差も見られないが、日本語の場合は違う。つまり、文語での「～給う」形が消え、新しく「お～になる」、「～られる」、「～てくださる」及び動名詞形など各々通辞意味を異にする四つの形をもって表現されている。次は客体尊敬表現である。客体尊敬表現においても韓国語は文語訳と口語訳の間に目立つ相違点は見つからない。しかし、日本語聖書の場合、主体尊敬表現の場合と同様、文語訳と口語訳とは表現の仕様が異なる。つまり、文語訳では「たてまつる」、「まつる」などの補助動詞をもって表現されているが、口語訳では「お～する」という文型として現れている。

第二、文末形態によつての対者待遇表現である。対者待遇表現においても韓国語は文語訳から普通体と丁寧体の区別が明確に行われていた反面、日本語はそうでないという相違点を持っている。つまり、日本語聖書の文語訳では普通体と丁寧体という区分が行われていない。しかし、口語訳に入って「～ます」「～です」という新しい形態が出始める。結局、日本語ではこれらの生成により初めて対者待遇表現が文法範疇に属するようになるのである。

最後に、接辞による敬語表現である。韓国語では、文語訳と口語訳とを問わず接尾辞「-님」だけが敬語の意味を加えるものとして働く。しかし日本語では文語訳と口語訳の間に相当の違いが見られる。つまり、文語訳では接頭辞「み-」だけがその働きを見せる。だが、口語訳では接頭辞「み-」が「み-」「おん-」「ご-」「お-」等に分れるだけでなく、同じ働きをする接尾辞「-さま」も現れはじめるのである。

本稿では待遇表現における両言語の本格的な対照は行われていない。しかし以上の通時的な考察を参考にすれば、自然に対照分析も出来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韓国と日本の待遇表現、通時的観点、聖書言語、素材敬語、
対者敬語、接辞による敬語表現、

투 고 : 2011. 11. 30
1차 심사 : 2011. 12. 17
2차 심사 : 2012. 1. 7